

[부록]

우리나라 의학학술지 현황(2007)

의학학술지편집인협회

요약

1997년 3월 우리 나라 의학 학술지 현황 조사를 한 뒤, 그 내용을 학술지 발전에 활용하였다. 2007년에도 같은 현황조사를 하여 지금의 현황을 과거에 비교하여 보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우리나라 의학 학술지가 발전할 수 있을지 알아보려고 하였다. 2007년 5월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 협의회 산하 165 학술지 회원 단체에게 설문지를 보내어 104 단체회원(63.0%)의 회신을 받아 분석하였다. 104개 단체 중 한 종을 두 학회에서 공동으로 발행하는 경우가 두 건이 있어서 대상 학술지 102종을 분석하였다. 1950년부터 10년 단위 창간연도는 1990 년대가 34.3% 로 가장 많았다. 간기는 3-4회가 33.3%, 1-2회가 32.4% 순이었다. 편집인의 임기는 2년이 64.7% 이었고 5년 이상은 2.0% 이었다. 70.6%에서 manuscript editor를 활용한다고 하였다. 일 년 발행 논문 수는 50 편 이하가 54.9%, 51-100편이 26.5%, 101-200편이 12.7%, 201 편 이상이 4.9%이었다. 출판윤리에 대한 항목에 응답한 77종 중 최근 5년간 이중게재를 발견한 곳이 31.2%, 표절은 5.2%, 조작은 2.6, 부정저자는 3.9%에서 발견하였다. 편집인이 가장 큰 관심 갖는 분야는 SCI 등재 심사 과정 및 의학학술 논문의 윤리적 문제 분야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1997년의 현황 조사에 비하여 큰 차이가 없다. 특히 이중게재가 1997년에도 20%에서 있었다고 하며 조작이 4%에서 있었다고 편집인이 지적한 것이 10년 후에도 계속되고 있는 점은 앞으로 조금 더 우리 의학 학술지 발간에서 심각하게 해결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자료는 앞으로 조금 더 항목을 줄이고 간단히 답을 할 수 있는 항목으로 정리하여 매년 학술지 현황을 조사하여 장기적인 발전 지표로 삼기를 제안한다.

1. 서론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이하 의편집)에서 1997년 3월에 우리나라 의학 학술지 현황 조사를 한 뒤 10년이 지난 2007년 5월 다시 한번 유사한 조사를 시행하였다[1]. 이 조사는 10년 전의 상황과 비교하여 우리나라 의학 학술지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알아보려고 하였고, 또한 앞으로 발전 방향의 바탕 자료로 삼으려고 하였다.

2. 대상 및 방법

2007년 5월 별첨 1의 설문지를 회원단체 165군데에 발송하여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165 군데의 회원 단체 중 하나의 학술지를 여러 단체에서 발행하는 경우도 각 단체별로 설문지를 받았다. 즉, 학술지 단위가 아닌 발행인 단위로 답을 받았다. 165개 단체 중 104 단체에서 답을 하여 회수율은 63.0% 이었다. 그러나 분석은 학술지 단위로 하여야 하므로 대한미생물학회 및 대한바이러스학회 두 단체에서 발행하는 “Journal of Bacteriology and Virology”와 대한생리학회 및 대한약리학회에서 발행하는 “Korean Journal of Physiology and Pharmacology”를 하나의 답으로 예산부분을 통합한 뒤, 102개의 학술지를 대상으로 하였다. 결과는 기술통계로 분석하였고, 1997년 설문과 같은 항목 중 일부는 과거 자료와 비교하였다. 통계프로그램은 dBSTAT 4.1을 사용하였다[2]. 통계 처리 중 무응답 또는 모름과 같은 답은 누락치로 간주하였다.

3. 결과

회신한 단체 및 학술지명은 별첨 2와 같다.

학술지 창간연도를 10년 단위로 보면 Table 1과 같다. 1990년대에 창간이 가장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Table 1. Year of Inauguration and number of journals

Yea of Inauguration	No. Journals (%)
-1960	10(9.8)
1961-1970	14(13.7)
1971-1980	10(9.8)
1981-1990	26(25.5)
1991-2000	35(34.3)
2001-	7(6.9)
Total	102(100)

간기는 Table 2와 같이 4회 이하가 67종으로 65.7%이었다.

Table 2. Number of journals according to the frequency of publication

Frequency	No. journals (%)
1-2	33(32.4)
3-4	34(33.3)
5-8	20(19.6)
12	14(13.7)
etc(web only)	1(1.0)
Total	102(100)

학술지를 인쇄하는 출판사 또는 인쇄소는 별첨 3과 같다. 의학문화사 27종, 중앙문화사 11종, 진기획 7종, 광문출판사 5종으로 4 개 출판사가 60종으로 59.4%를 차지하였다.

학술지가 등재된 데이터베이스를 보면 Table 3과 같다. KoreaMed 및 KCI에는 58.9%가 등재되었으나 각 국제 색인 데이터베이스에는 10% 미만이 등재된 것을 알 수 있다.

Table 3. Indexed database of journals

Database	No. journals(%)
KoreaMed	60 (58.9)
KCI*	60 (58.9)
PubMed	9 (8.9)
SCI/SCIE	3 (2.9)
etc**	13 (12.8)
Total	145 (142.1)

*KCI: Korea Citation Index by Korea Research Foundation

**J Korean Neurosurg Soc (EMBASE, KISEP, KMbase, KERIS), 의과학 (DOAJ), J Vet Sci (CAB, BIOSIS Previews, EMBASE, EBSCO, AGRIS, Biological Abstracts, AGRICOLA, Zoological Record)

학술지 발행 예산에 응답한 97개 학술지의 2006년도 총 수입은 5,691,000,000원이었으며 이 중에서 40.8 %는 학회 회비, 11.0%는 외부 지원, 광고비 35.6%, 저자 부담금 10.2%, 구독료 1.4% 기타 수입 0.9%이었다. 각 학술지 수입의 범위는 2,938,000원부터 595,590,000원이며 평균은 58,670,000원, 표준편차는 76,390,000원이었다. 97개 학술지의 2006년도 총 지출은 4,907,000,000원이었으며 이 중에서 인쇄 및 발송비가 80.8%, 심의료 7.2%, 편집보조인력 인건비 5.2%, 기타 6.5%이었다. 각 학술지 지출의 범위는 2,300,000원부터 485,530,000원이며, 평균은 50,590,000원이며 표준편차는 41,190,000원이었다. 총 수입과 지출이 정확히 맞지 않는 것은 지출 항목의 기술이 각 학회마다 수입과 완벽하게 맞지 않아서이다. 이것은 실제 흑자가 났다가보다는 지출 항목 기술과 수입 항목 기술에서 숫자를 맞추지 못한 때문으로 여긴다. 97개 학술지의 수

입과 수출의 분포는 Table 4 및 Table 5와 같다.

Table 4. Number of journals according to the income

Amount of income	No. journal(%)
More than 100,000,000	17(17.5)
50,000,000- 100,000,000	15(15.5)
20,000,000-500,000,000	33(34.0)
Less than 20,000,000	32(33.0)
Total	97(100)

Table 5. Number of journals according to the outcome

Amount of outcome	No. journals(%)
More than 100,000,000	15(15.5)
50,000,000- 100,000,000	12(12.4)
20,000,000-500,000,000	25(25.8)
Less than 20,000,000	45(46.4)
Total	97(100)

회원을 제외한 유료구독자의 수는 한 명도 없는 경우 68종, 1-50 명이 7종, 51-100명이 3종, 101명 이상이 4종이었으며 무응답이 20종이었으나 이 무응답은 전부 유료 구독자 없는 것으로 간주하면 유료 구독자가 있는 종은 14종(13.7%)이다.

학술지 발송처(circulation) 수는 총 214,216 곳이고 학술지 평균은 2,142, 표준편차는 3,841 곳이었다. 각 발송처 수 별 학술지 수는 Table 6과 같고 70.6%에서 2,000 곳 이하이었다.

Table 6. Number of journals according to the number of circulation

No. circulation	No. journals (%)
less than or equal to 1000	51(50.0)
1001-2000	21(20.6)
2001-5000	19(18.6)
5001-10.000	8(7.8)
more than 10000	2(2.0)
No response	1(1.0)
Web only paper	1(1.0)
Total	102(100)

편집인의 임기는 1년부터 5년까지 범위이나 2년이 66종(64.7 %)으로 가장 많았다 (Table 7). 단임제는 14 종, 연임제는 80종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연임제 시행하는 곳에

서, 1 회 연임 가능성이 8종, 2 회 6종, 3회 5종이었으며 33 종에서는 연임 회수에 제한이 없었다. 나머지는 규정이 없거나 응답이 없었다.

Table 7. Number of journals according to the term of editors

Term of editor(year)	No. journals (%)
1	4 (3.9)
2	66 (64.7)
3	16(15.7)
4	3 (2.9)
5	2 (2.0)
No response	11 (10.8)
Total	102 (100)

편집위원(또는 간행위원)의 수는 Table 8과 같다. 편집위원수는 모두 1,728명이며 평균 17.0명 표준편차 11.4명이었다.

Table 8. Number of journals according to the number of editorial members

No. Editorial board members	No. journals (%)
-10	27 (26.5)
11-20	42(41.2)
21-30	21(20.6)
31-40	4(3.9)
41-50	2(2.0)
51-	6(5.9)
Total	102(100)

편집보조인(copy editor, 원고편집인)의 고용 여부는 Table 9에 정리되어 있다. 30종의 학술지에서 별도의 편집보조인을 활용하고 있었다.

Table 9. Number of journals according to the recruitment of copy editor

Cases	No. journals (%)
Copy editor	28 (27.5)
Clerk with role of copy editor	44 (43.1)
Copy editor and the clerk with role of copy editor	2 (2.0)
Absent	24 (23.5)
No response	4 (3.9)
Total	102 (100)

학술지 별 2006년도 발행 논문 수는 Table 10과 같다. 응답한 101개 학술지의 총 논문 수는 6,898개이었으며 범위는 6-343개, 평균은 68.1개, 표준편차 67.7개 이었다. 게재 논문의 유형(publication type)은 응답한 학술지 논문 6,710개 중 종설 8.0%, 원저 61.8% 증례 24.5% 기타 5.7%이었다. 또한 투고 논문 수를 답한 93개의 학술지의 총 투고 논문 수는 9,093개이었으면 그중 6,458개가 게재되어 평균 게재율은 71.0% 이었으며 표준편차는 19.8%이었다. 게재율은 11.5%에서 136.9% 까지이었다. 100%가 넘는 것은 그해에 투고된 것과 출판한 것만 계산하여 그 전년도에 넘어 와서 출판한 것은 계산에 넣지 않아서이다. 93종 중 게재율이 90% 이상인 것이 40종, 71-80%가 29종, 51-70%가 18종, 50% 이가 6종이었다. 게재율이 50% 미만인 것은 Korean J Radiol, Yonsei Medical J, 가정의학회지, J Vet Sci, Exp Mol Med 및 Korean J Hematol이었다.

Table 10. Number of journals according to the number of papers per journal

Number of papers per journal	Number of journals(%)
less than 51	56 (54.9)
51-100	27 (26.5)
101-200	13(12.7)
more than 200	5(4.9)
No response	1(1.0)
Total	102 (100)

중복 응답이 가능하게 하여 알아본 논문 투고 방법은 웹투고가 25종(20.5%), 전자우편 45종(36.9%), 우편 50 종(41.0%) 기타 1 종(0.8%) 무응답 1종(0.8%)으로 우편으로 투고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나 웹투고 및 전자우편 투고를 모두 온라인투고로 간주한다면 70 종으로 무응답을 제외하였을 때, 69.3%에서 온라인투고를 활용하고 있었다. 48 종(47.1%)의 학술지는 논문 출판할 때 전문의고시 자격을 충족시키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었다.

논문 심사 제도를 보면 무응답 1종을 제외한 101종에서 편집인 단독 심사 1종(1.0%),

정해진 심사위원 pool에서 심의를 의뢰하는 경우 83종(81.4%), 정해진 pool이 없이 심의를 의뢰하는 경우 20(19.6%)이었다. 3 개의 학술지는 pool에서 의뢰하거나 pool 바깥에서도 의뢰하였다.

심사위원 수는 편집인을 포함하여 2명 이상인 경우가 응답한 100종 중 99종이었으며 한 종에서는 1인이 심사를 하였다.

이중게재, 표절, 조작 및 저자되기 문제(부정저자)에 대한 항목에 응답한 77종 중 각각 24(31.2%), 4(5.2%), 2(2.6%), 3(3.9%) 종에서 있었다고 답하였다.

편집인이 관심있는 분야는 중복하여 답을 한 결과 Table 11과 같다. SCI 등재 및 연구출판 윤리에 가장 관심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Table 11. Contents that editors have an interest

Content	No. editors (%)
Review procedure for indexing to SCI	62 (60.8)
Research and publication ethics	38 (37.3)
Policy of journal evaluation	29 (28.4)
Experience of peer review	27 (26.5)
Editorial independency	25 (24.5)
International scientific communication	22 (21.6)
Policy of multi-nationality commercial publisher	21 (20.6)
Indexing to database and web publication	13 (12.7)
Progress of Western Pacific Regional Index Medicus	12 (11.8)
NLM's indexing techniques	11 (10.8)
MeSH	11 (10.8)
Total	271

4. 고찰

이러한 자료는 우리 나라에서 오직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회에서만 시행하여 확보한 것으로 서지사학 의의가 깊다. 이러한 내용을 보면 비록 전수 조사는 아니지만 102종의 출판 지출 경비가 50 억원 가까웠다는 점에 비추어 그렇게 큰 시장은 아니나 165 종으로 확대하고 또한 아직 의편집 회원 학술지가 아닌 의학관련 학술지를 고려한다면 일년에 출판 경비가 100 억원 대라고 추정할 수 있다. 즉 의학 학술지 출판 시장이 국제적인 유통과 다르게 우리나라는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대개 학회나 학교 등 비영리단체

에서 출판한다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점은 국제적으로 유가로 유통되는 이른바 높은 인용도 지수의 영미계열 학술지가 주도하는 의학정보의 시장에서 유통되려면 초기 진입단계에서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이다. 또한 Open Access 잡지가 새로운 추세로 자리 잡는 현황에서 가능하다면 무료로 전문을 웹을 통하여 제공하여 국제적인 유통을 활발히 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는 정부에서 국제 학술지 발간을 정책적으로 권장하고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 알 수 있는 점은 학술지 간에 예산이나 논문 편수 등에서 상당한 차이가 나고, 일부 학술지는 풍부한 예산으로 학술지 발전을 위하여 투자를 아끼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그동안 영세하다고 알고 있던 의학학술지 발간 시장이 규모면에서 차별이 심하게 벌어지고 있다. 1997년은 우리나라에서 SCI 학술지의 위력이 최고조에 달하던 때로 그 즈음에 정부에서 권장하였던 SCI 학술지 출판하는 연구자에게 연구비 우선권으로 인하여 의학 연구자 사회도 문화 충격을 받은 직후이다. 그러한 모습은 10년 뒤에 많은 편집인이 SCI 등재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지게 되는 바탕이 되었다. SCI 등재를 위하여는 과학 언어는 영어라는 현실에 맞아야 하므로 일부에서는 영문 학술지로 변화를 꾀하고 영문으로 학술지명을 바꾸기도 하였다. 그리고 또 하나의 큰 관심은 연구출판윤리로 오랜 기간 관행으로 이루어졌던 이중게재 문제가 더 이상 국제 사회에서 용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많은 편집인이나 연구자가 깨닫게 되었다. 그 이유는 1997년에는 거의 초기 단계였던 KoreaMed가 국제적으로 활용되는 local database로 발전하였고, 구글스칼라를 통하여 전세계의 학자에게 영문 초록이 공개됨으로써 더 이상 국내 학술지를 국제적으로 유통되지 않는 고립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69.3%에서 온라인 투고를 시행하고 있는 것은 1997년 상황에 비추어 획기적인 변화이다. 그때는 비록 웹이 등장하고 있었지만 아예 설문 항목에 온라인 투고는 없었고, 관리를 컴퓨터를 이용하여 하느냐를 물어 보았다. 10년만에 가장 빠르게 변한 것이 이 온라인 투고이고, 이제 대부분의 국제 학술지는 온라인투고가 대세로 자리 잡고 최근에는 온라인 투고가 아니면 투고를 하지 않는 연구자가 대부분이며 심의도 온라인으로 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 온라인 투고는 도입하면 투고논문수가 늘어난다는 보고에 비추어 우리나라 의학 학술지도 앞으로 저자를 국내외를 막론하고 확보하기 위하여는 필수 항목이므로 편리한 온라인투고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

많은 발전에도 불구하고 상당 수 학술지는 아직도 간기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며, 투고 논문 수 부족 및 부족한 예산으로 적절한 투자를 하거나 원고편집인(copy editor)를 전일제로 또는 시간제라도 고용하는 것이 어려운 형편임을 예산 규모를 보면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의학 학술지 시장에는 진입 장벽이 없다. 누구든지 학술지를 발행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낮은 진입장벽으로 인하여 1990년대에도 봄이 인 학술지 창간이 이제 경쟁력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구조 조정이 되어야 할 때가 다가왔다. 이미 국내 의생명과학 분야에서 일년에 만 편이 국제 학술지에 실리고 있고 국내에는 코리아메드 등재 학술지에 만 편이 실리고 있다. 즉, 국제 색인 데이터베이스에 등재되지 못하는 국내 학술지는 전문의 시험 볼 때 의무 투고나 출판을 규정으로 하는 일부

학술지를 제외하고는 이미 국제수준에 다다른 국내 연구자로부터 투고받는 것이 매우 어려워졌다. 이런 점을 극복하기 위하여는 유사 분야 학술지 통폐합과 영문화, open access 학술지로 변화, DOI 가입, PMC 등재 등을 통하여 국제적인 학술지의 표준을 따라가면서 분야마다 일정 수 미만의 학술지를 국제 색인 데이터베이스에 등재시키도록 키워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설문은 지나치게 회수율이 낮고, 또한 설문에 답한 내용 중 일부는 설문의 뜻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질문이 있었다. 예를 들면 발간 부수를 물어 본다면 이것은 circulation으로 발송 목록수라는 개념인데 모든 호의 발행한 부수를 더하여 일년에 45,000부 발행한다고 적은 것이 아니었다. 우리나라 현직에서 일하는 의사의 1/2 이상에게 발송할 만한 양을 발간 부수로 한다는 것은 현실성이 없는 일이므로 이런 경우는 12로 나누어 주었다. 또한 설문이 너무 많아, 이 자료를 어디에 쓸 것인지 목적을 잘 살펴보고 항목을 대폭 줄여서 국제적으로 공통의 관심사로 적어야 하는 것 중심으로 하고 또한 의편협에서 자체로 조사 가능한 항목은 미리 조사를 한 뒤, 단체에서 적어 주어여만 하는 항목만 설문에 넣으면 될 것이다. 예를 들면 일년간 발간 논문 수는 코리아메드 통하여 바로 나온다. 또한 색인데이터베이스도 이미 의편협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활용하면 된다. 이 설문을 단순하게 하여 매년 반복하여 시행하여 비교 가능하고 방향을 파악할 수 있는 내용으로 재편할 것이다.

참고문헌

1.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의학학술지 현황조사(1997).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서울; 1997.
2. dBSTAT 4.1 available from <http://dbstat.com>

별첨 1.

의학학술지 현황 조사(2007)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회는 1996년에 창립되어 지난 10여 년간 국내 의학학술지의 발전을 위해 의미 있는 활동을 펼쳤습니다. 1997년에 회원학회 학술지 현황조사를 위한 설문지를 바탕으로 국내 의학학술지의 수준 향상 방안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학술지 평가 제도와 KoreaMed라는 국내 학술지 초록 DB를 구체화 하였습니다.

의편집에서는 1997년 이후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다시 한번 국내 의학학술지의 현황을 조사하여 국내 학술지 발전을 위한 제2의 도약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조사하는 설문사항은 올해 발간하게 될 의편집의 발전사에 부록으로 포함될 예정입니다. 바쁘시겠지만 첨부한 설문사항을 빠짐없이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회신기한 및 방법: 2007년 5월 15일 전자메일(koreamed@kams.or.kr)
2. 문의: 의편집 학술지 현황조사 담당자(798-3807)
3. 설문지 작성자

작성자			
성 명		학회직위	
근무처명		e-mail	
전 화		팩 스	

(※ 설문지는 편집위원장이거나 간사께서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회

- () 논문 심사 제도가 없다.
2. 2006년도에 논문심사에 참여한 인원? 국내인 ()명, 외국인 ()명
3. 심사위원 선정 방법
- () 논문 투고자가 희망 심사위원을 추천할 수 있다.
- () 편집위원장이 정한다.
- () 편집위원회에서 심사위원을 정한다.
- () 심사위원 Pool을 분야별로 미리 관리한다.
- 심사위원 Pool에는 몇 명이 있습니까? ()명
- () 기타(방법을 적어주세요)
4. 심사위원의 논문 심사비는 얼마입니까? ()원
5. 논문 심사 현황
- 5-1. 논문 한편의 심사는 몇 명이 합니까?
- () 심사위원 1명 · () 심사위원 2명 이상
- () 심사위원 1명+ 편집인 · () 심사위원 2명 이상+ 편집인
- 기 타()
- 5-2. 1차 심사 결과는 대략 어떤 분포입니까?
- 게재가 ()% · 게재 불가 ()%
- 재심사 의뢰 ()% · 간행위원회 수정 확인 후 게재 ()%
- 기 타 ()%
- 5-3. 논문 심사위원의 수정 내용에 대한 대략적 분포입니까?
- 논문 형식에 대한 일부수정(오자 및 참고문헌 나열 방식 등) ()%
- 내용에 대한 비교적 깊이 있는 지적 ()%
- 내용에 대하여 다른 문헌을 인용하면서 “매우” 자세히 지적한다. ()%
- 5-4. 1차 심사에 소요되는 기간 얼마입니까?
- 2주 이내에 회신이 온다. ()%
- 4주 이내에 회신이 온다. ()%
- 2개월 이내에 회신이 온다. ()%
- 2개월 이상 걸린다. ()%

VII. 기타 사항

1. 최근 5년간 아래에 해당하는 논문이 몇 편이나 발견되었습니까?
- 중복출판(이중게재) ()편 · 표절 ()편 · Data 조작 ()편
- 부정 저자 ()편 · 기 타 (내용과 편수를 적어주세요)
2. KoreaMed 활용도 조사
- () 거의 매일 이용한다.
- () 주에 1회 정도
- () 달에 1회 정도
- () 거의 이용하지 않는다
3. KoMCI 활용도 조사
- () 거의 매일
- () 한주에 1회 정도

- () 한달에 1회 정도
 () 거의 이용하지 않는다
4. 자주 이용하는 DataBase
- 4-1. 국내
 KoreaMed ()% MedRIC ()% MEDLIS ()%
 KERIS ()% 기타 (DB명과 퍼센트를 적어주세요)%,
- 4-2. 국외
 PubMed ()% PubMed Central ()%
 기타 (DB명과 퍼센트를 적어주세요)%,
5. 2008년 5월 2-3일 대한의사협회 100주년 기념 학술대회 행사 기간 중에 가칭 “아시아태평양 의학학술지 편집인협의회” 창립총회 및 학술대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이 행사에 대하여 어떤 프로그램이 준비되었으면 좋다고 생각하시는지 해당 문항을 3개 이내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 학술지 편집인의 편집권
 () 다국적 학술지 출판사의 정책
 () 편집인의 논문 심사 관리 경험
 () SCI 등재 심사 과정
 () NLM의 학술문헌 색인 기술 전망
 () 학술지를 통한 국가간 학술 교류
 () 의학학술 논문의 윤리적 문제
 () Google 등 인터넷 색인과 학술지 발행
 () 서태평양 Index Medicus 의 발전 방향
 () 학술지 평가 정책
 () MeSH
 () 기타 (프로그램을 적어주세요)
6. 의편협에 대한 건의사항을 적어주세요.

[별첨2] 설문조사에 응답한 학회에서 발행하는 학술지명(영문 학술지명은 축약명을 사용)

<p>Exp Mol Med Exp Neurobiol Genomics Inform Hanyang Med Rev Immune Netw J Bacteriol Virol J Breast Cancer J Cardiovasc Ultrasound J Korean Neurosurg Soc J Rhinol J Vet Sci Korean J Hematol Korean J Hepatol Korean J Ophthalmol Korean J Parasitol Korean J Pathol Korean J Pediatr Korean J Physiol Pharmacol Korean J Radiol Tuberc Respir Dis Yonsei Med J 계명의대논문집 노인병 노인정신의학 농촌의학·지역보건 당뇨병 대한간호학회지 대한건축관절학회지 대한골관절종양학회지 대한골대사학회지 대한골절학회지 대한구강악안면병리학회지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지 대한기관식도과학회지 대한내분비학회지 대한류마티스학회지 대한마취과학회지 대한미용성형외과학회지 대한방사선종양학회지 대한배뇨장애및요실금학회지 대한비뇨기과학회지 대한산업의학회지 대한생식의학회지 대한성형외과학회지 대한세포병리학회지 대한소아내분비학회지 대한소아소화기영양학회지 대한소아신장학회지 대한소화관운동학회지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지 대한수혈학회지</p>	<p>대한스포츠의학회지 대한신경과학회지 대한안과학회지 대한영상의학회지 대한영양사협회학술지 대한외과학회지 대한위암학회지 대한응급의학회지 대한의료정보학회지 대한의사협회 대한의진군학회지 대한이비인후과학회지-두경부외과학 대한이식학회지 대한임상미생물학회지 대한재활의학회지 대한정신약물학회지 대한족부족관절학회지 대한주산의학회지 대한중환자의학회지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지 대한진단검사의학회지 대한체질인류학회지 대한치과교정학회지 대한치과보철학회지 대한통증학회지 대한피부과학회지 대한혈관의과학회지 대한흉부외과학회지 병원감염관리 보건의료교육평가 보혈의학회지 부인종양 성인간호학회지 소아심장 신경정신의학 아동간호학회지 의사학 의학물리 임상검사와정도관리 전남의대학술지 정신병리학 정신분석 정신신체의학 중앙간호학회지 충북의대학술지 한국간담체외과학회지 한국역학회지 한국영양학회지 한국의학교육 한국전자현미경학회지</p>
--	--

[별첨 3] 의학학술지를 인쇄하는 출판사 또는 인쇄소

발행처	학술지 수	학술지명
(주)메드랑. 도서출판 의학문화사	28	가정의학회지, 대한골절학회지, 대한류마티스학회지, 대한마취과학회지, 대한방사선종양학회지, 대한배뇨장애및요실금학회지, 대한비뇨기과학회지, 대한소아소화기영양학회지,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지, 대한수혈학회지, 대한외과학회지, 대한위암학회지, 대한이식학회지, 대한임상미생물학회지, 대한재활의학회지, 대한중환자의학회지, 대한통증학회지, 대한피부과학회지, 대한혈관외과학회지, 대한흉부외과학회지, 부인종양, 의학물리, 전남의대학술지, Exp Mol Med, Exp Neurobiol, Immune Netw, Korean J Hematol, Korean J Physiol Pharmacol
중앙문화사	11	노인정신의학, 대한이비인후과학회지-두경부외과학, 대한정신약물학회지, 신경정신의학, 정신병리학, 정신분석, 정신신체의학, 한국영양학회지, J Cardiovasc Ultrasound, J Korean Neurosurg Soc, J Rhinol
진기획	7	대한소화관운동학회지, 대한신경과학회지, 대한안과학회지, 대한의료정보학회지, 대한족부족관절학회지, Korean J Hepatol, Korean J Ophthalmol
광문출판사	5	대한소아내분비학회지, 대한소아신장학회, 대한주산의학회지, 소아심장, Korean J Pediatr
서흥출판사	4	대한골대사학회지, 대한생식의학회지, 대한의진균학회지, J Bacteriol Virol
최신의학사	3	대한건주관절학회지, 대한골관절종양학회지, 대한산업의학회지
골드기획	3	당뇨병, 대한내분비학회지, 병원감염관리
(주)디자인메카	3	대한미용성형외과학회지, 대한성형외과학회지, Yonsei Med J
한림원	2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지, J Vet Sci
정행사	2	대한체질인류학회지, 한국전자현미경학회지
의학출판사	2	노인병, 대한스포츠의학회지
의치학사	2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지, 대한치과보철학회지
아카데미아	2	대한진단검사의학회지, Korean J Pathol
성문각	2	대한영상의학회지, Korean J Radiol
고려의학	2	대한세포병리학회, 의사학
(주)상지피앤아이	2	대한간호학회지, 아동간호학회지
함춘한학	1	한국역학회지
한컴닷컴	1	Hanyang Med Rev
한국학술정보	1	보건의료교육평가(보관본 인쇄)
한국의학원 출판부	1	대한기관식도과학회지
하나문화사	1	Tuberc Respir Dis
청운	1	한국의학교육
조이디자인	1	한국간담췌외과학회지

일광	1	충북의대학술지
의학사랑	1	성인간호학회지
의술문화사	1	임상검사와정도관리
우리의학사	1	대한응급의학회지
아이피씨미디어	1	J Breast Cancer
썸미디어	1	대한영양사협회학술지
서울대학교출판부	1	Korean J Parasitol
상지출판사	1	중앙간호학회지
디자인APP	1	보험의학회지
두리문화사	1	농촌의학·지역보건
군자출판사	1	대한구강악안면병리학회지
국진피앤디	1	Genomics Inform
21세기	1	대한치과교정학회지
(주)갑우문화사	1	대한의사협회
무응답	1	계명의대논문집
합계	102	